

115개 개인작가부스 흥행 일등공신 볼거리 풍성한 특별전 관람객 몰려

광주국제아트페어 결산

짙 성과

해외갤러리 참가 늘어...수천만원 호가 작품 대거 출품 작가가 들려주는 작품 이야기...‘폐차쿠차 광주’ 인기

관객역대 최대, 활기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각종 특별전 인기. 2016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 : 광주 : 16’ (24~28일)이 크고 작은 이야기를 남기며 28일 폐막했다.

올해 아트페어의 가장 큰 특징은 예년까지 열렸던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벗어나 문화전당에서 개최된 점이다.

5일간 관람객 약 9만명이 방문하며 그동안 주말에도 한산했던 문화전당이 오래간만에 생동감 있는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아트페어를 계기로 문화전당 곳곳을 둘러보며 관심을 가졌다.

또 아트페어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금남로·충장로 일대로 발걸음을 옮기며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됐다. 아트페어 기간 금남로, 5·18민주광장 일대에서는 ‘광주 프리지페스티벌’, ‘청년의 거리’가 열려 시너지 효과를 냈다.

아트페어는 미술품을 사고파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미술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행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올해 광주아트페어는 지난해에 비해 해외갤러리 참가부스가 늘어 다양한 세계 미술을 접할 수 있었다. 올해는 국내외 13개국에서 74개 갤러리가 참여했으며 이중 국외는 32개다. 지난해 14개(8%)에서 대폭 늘어난 약 40%를 차지하는 수치다. 프랑스(12

개 갤러리), 일본(4개), 중국(3개), 캐나다(2개) 등에서 광주를 방문했다.

해외 갤러리가 늘어난 만큼 유명작가 작품도 다수 볼 수 있었다. 김장열, 박서보, 미국 앤디 워홀, 독일 케테 콜비츠, 중국 위안민진, 장사오강 작품 등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작품이 출품됐다.

판매작품은 약 900점, 판매액은 약 3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갤러리에서 출품한 지역 청년작가 배수민씨 작품은 부담없는 가격에 합성수지로 만든 반부조 형식 독특한 모양새로 인기를 끌었다. ‘필레 드 서울’ 소속으로 나온 광주 출신 신수정 작가도 작품 ‘관조’를 완판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 베이징에서 평정지, 우밍중 작품을 들고 온 갤러리도 1억원 이상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작가부스 효과는 올해도 유효했다. 문화창조원과 문화정보원 일대에 조성된 115개 개인작가부스 참여작가들은 가족, 지인들을 초대하며 역대 최대 관람객 동원에 일조했다. 특히 문화창조원 지하 2층에 위치한 지역 청년작가 작품들 앞에서 많은 발길이 멈췄다. 성유진, 김선희, 박경희, 남성희, 양나의 작가 등은 직접 작품을 설명하며 관람객과 소통했다.

아트페어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됐던 특별전시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문화창조원 야외에서 열렸던 ‘광주 조형페스티벌’은 조각 20여점을 전시하며 본격적인 부스 관람에 앞서 작품 감상 분위기를 띄웠다.

문화창조원 복합5관에서 열렸던 ‘비엔날레 특별전’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9월2일 개막하는 ‘2016 광주비엔날레’ 기념 전시로 11월6일까지 열린다. 국내외 작가 60명이 참여해 갤러리·개인부스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현대미술작품을 선보였다.

‘강연군·황영성 특별전’은 지역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광주 대표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였다. 광주미술수준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으며 발길을 멈추게 하는 두 대표 화가들의 농익은 솜씨를 볼 수 있었다.

중국 왕두와 해남 출신 한홍수 작가가 참여한 ‘유네스코 특별전’에서는 작품 2점이 판매되며 나눔 정신을 실천했다. 판매된 작품 수익금 일부는 유네스코에 기부돼 제3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쓰인다.

‘폐차쿠차 광주’가 열렸던 예술극장 외부계단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학생, 가족 등 약 200여명이 계단을 가득 채우고 작가가 들려주는 작품 소개 귀를 기울였다. ‘폐차쿠차’는 일본어로 ‘재잘재잘’이라는 의미로, 작가 약 40명이 참여해 개인당 10분씩 20작품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쇼였다. 관람객을 직접 만나기 드물었던 작가들은 작품을 그렸던 계기, 소재에 대한 이야기 등을 말하고 질문도 받으며 소통했다. /김용희기자 kimyh@



‘2016 광주국제아트페어’ 마지막날인 28일 오후, 관람객들이 문화정보원 지하3층에 펼쳐진 개인작가 부스를 방문해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올해 아트페어는 관람객 8만명, 판매액 30억원을 기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6년 앞드려 글쓰기 서예 후배들에 끈기 보여주고 싶었다”



‘채근담’ 359장 6년 만에 작품 완성한 서예가 정광주

“의미 있는 삶 가르침 채근담은 내 인생 지표”

31일~9월 6일 서울 한국미술관 초대전 ‘채근담’ 책 출판기념회도



“중국 명나라 말 혼란스러운 시국에 쓰여진 ‘채근담(菜根譚)’을 읽다보면 지금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의 몸가짐, 생각 등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기 보다는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타이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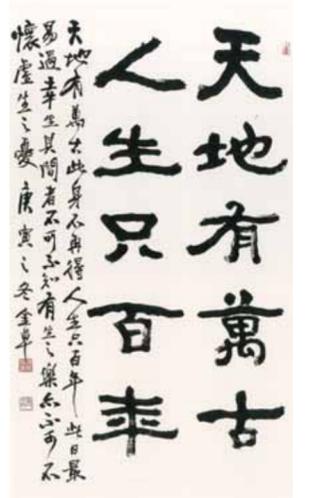
금초(金草) 정광주(64) 서예가는 항상 ‘채근담(菜根譚)’을 곁에 두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그는 최근 채근담 전집 225장, 후집 134장 등 총 359장에 달하는 내용을 작품으로 완성했다. 모두 세로 140cm 이상 대작들이다. 지난 2010년부터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등 서예 5체로 나눠쓰며 장시간 고민하고 공을 들였다.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50번이나 다시 쓴 일도 있었다.

정씨는 “서예 인생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채근담을 보고 쓰고 살아왔다”며 “내 자신을 성찰하고 분발하게 한 책이다”고 말했다.

“서예 인생 40년과 환갑을 맞아 인생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시작한 작품입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서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생각도 있었고요. 원래는 4년 전에 완성을 예정했는데 미흡한 점을 보완하다 보니 좀 늦어졌네요.” (웃음)

가장 기억에 나는 구절은 무엇일까. 정씨는 “천지는 만고에 있으니 이 몸은 두번 다시 없고 인생은 단지 백년이로되 이날 또한 가벼이 쉽다. 다행히도 그 사이에 태어난 자로서 삶의 즐거움을 몰라서 도 안 되겠지만 헛되이 사는 삶에 대해서 근심을 품지 않아서도 안되리라.”(채근담 전집 107장)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즐거움도 느껴야 되지만 의미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매순간 자기 삶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며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채근담 전집 107장’

의미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은 그의 삶에서도 나타난다. 정씨는 조선대 영문학과에 입학했지만 ‘우리말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데 외국어를 배우서 뭘하겠냐’는 생각으로 서예에 입문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중 안정된 직장생활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서예가 길로 들어섰다. 32살 때부터는 금초서예원을 운영하며 서예 보급과 후학 양성에 힘썼다.

그로부터 40여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1989), 미술의 해를 빛낸 미술인상(1995) 수상을 비롯해 제8회 광주미술협회장을 맡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오는 31일부터 9월6일까지는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채근담’ 특별초대전을 열어 9번째 개인전을 계획하고 있다. 작품 359점을 모두 출품하는 대규모 전시다. 또 한국미술관 지원을 받아 펴낸 ‘서예작품 채근담’ 책 출판기념회도 열 예정이다.

“지난 6년간 앞드려서 글을 쓰는 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선배로서 서예 후배들에게 끈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서예계가 어렵다고 붓을 놓는 후배들이 많은데 채근담에 나오는 것처럼 진정 의미있는 삶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http://jinhan-shona.blog.me>

박물관 시낭송콘서트 금남로 연가

- ◆ 일시 | 2016년 8월 31일 오후 6시
- ◆ 장소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 주최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운영위원회
- ◆ 주관 | 서구문화원 다솜 시낭송회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캐럴센터 뒤 금남로연 1층)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감농 Set

다담 Set

우전감로

감사 Set

한국제다는 10만명의 자가농장과 60여년의 제다各種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5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的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